

“언어 장벽·인종 편견 실력으로 극복 했어요”



오페라 '나부코'

오페라 '아이다'

이탈리아 베로나 고대 원형극장에서 매년 여름 열리는 '베로나 아레나 페스티벌'은 102년 역사의 음악 축제다. 올해 무대에 오른 '아이다'는 한국인 입세경씨가 주인공 아이다역을 맡아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 작품에서는 또 한명의 한국인 성악가가 눈에 띄었다. 이집트 왕역으로 출연한 베이스 심인성(45)씨다.

여수 출신인 심 씨는 세계적인 오페라 단 비엔나 슈타츠오페라 전속 성악가로 활동한 후 지금은 프리랜서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내년 런던 코벤트 가든 데뷔를 앞두고 잠시 귀국한 심씨를 만났다.

1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시작한 심 씨는 광주에 2학년 때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에 출연, 금상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1996년 광주 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한 그는 1998년 오스트리아로 건너갔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비엔나 슈타츠오페라 전속 가수로 활동한 그는 플라시도 도밍고, 안나 네트렙코, 안젤라 게오르규, 빌라르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파르시팔', '라 보엠', '돈 조반니',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서 공연하며 경력을 쌓아왔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처음 외국에 나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죠. 약간의 인종 차별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력이 다 커버해 주더군요. 유럽에서 한국 성악가들이 꽤 많이 활

유럽 오페라계 맹활약...호남예술제 출신 베이스 심인성씨

2001년부터 8년간 비엔나 슈타츠 오페라 전속가수 활동 도밍고·네트렙코와 한 무대...내년 코벤트 가든 데뷔도 “고2때 출전한 호남예술제는 유럽 오페라 활동 발판”

동하는데 저를 포함해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 실력 뿐입니다. 솔직히 베이스는 화려한 테너나 소프라노에 비해 주목을 덜 받죠. 조역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하지만 극을 받쳐주는 베이스 역할은 오페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빈 슈타츠 오페라는 매년 50여편 이상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심씨는 매년 10여편을 공연했다. 2008년 그는 안정된 비엔나 슈타츠 오페라를 떠나 프리랜서 성악가로 도전장을 던졌다.

“노래를 하면서 항상 행복했는데 언제부터가 행복한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오페라단 생활이 정형화된 부분이 많다 보니 내가 예술가가 아닌, 기술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무대만 무사히 넘기자 그런 마음이 깊어지면서 동기 부여도 사라졌구요. ‘정말 오페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슈타츠 오페라에 있으면 월급도 나오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젊어서 고생하자

이 생각만 갖고 과감히 사표를 던졌죠. 여수 촌놈의 막연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첫 무대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공연된 베르디 ‘에르 나니’의 실바였다.

“큰 책임감을 갖고 무대에 섰죠. 빈에 있을 때와 오늘 못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만 프리랜서일 경우 한 극장 공연에서 순간 잘못하면 다시는 그 극장에서 초청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첫 무대는 성공적이었고 이후 러브콜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오페라 ‘마직’의 짜라스트로, ‘루치아 디 라메르무어’의 레이몬드 등을 베로나 아레나 페스티벌과 이스라엘 텔 아비브 등에서 열연했다. 한국 무대는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한 2006년의 ‘돈 조반니’와, 2011년의 ‘사랑의 묘약’ 두 편이었다.

2016년 시즌 일정은 이미 짝 짜여 있다. 심씨는 드디어 오페라의 성지 중 하나인 런던 코벤트 가든 무대에 진출한



다.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티무르 역과 ‘오텔로’의 로드리고 역을 맡았다. 또 모나코 몬테카를로 오페라단과도 3개의 작품을 공연할 예정이며 일본 도쿄, 스페인 톨레즈 공연도 기다리고 있다.

호남예술제는 그의 음악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나갔던 콩쿠르가 호남예술제였어요. 지금도 여수 집에 당시 받았던 상패가 놓여 있는데 그걸 보면 무언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래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제가 유럽에서 성악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준 게 호남예술제죠. 당시 장학금이 15만원이었는데 전액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심씨가 가장 많이 러브콜을 받는 역은 베르디의 작품이다. ‘나부코’의 자카리아 등 베르디의 오페라는 베이스의 매력

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들로, 오케스트라를 뚫을 정도의 파워풀한 성량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역할이기도 하다.

“유럽에서 베이스는 마흔살부터라고 해요. 제 나이가 올해 딱 마흔인데.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자신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다면 이제는 부족하나마 고향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일 '문화가 있는 날'...광주·전남 풍성한 행사

미술관·박물관 개관시간 연장 공연·영화 부담없이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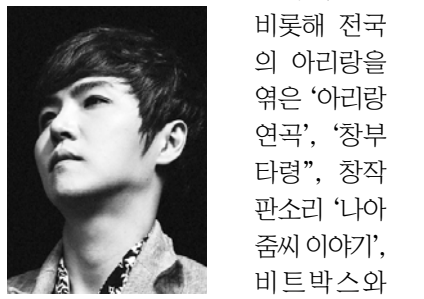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국 공연, 전시, 영화 등을 무료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25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풍성한 행사가 준비됐다.

광산문화예술회관은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광산하우스콘서트9-음악의 정원'을 개최한다. 이 공연에서는 굽직한 바로크 발상의 테너 박승희씨와 피아니스트이자 첼리스트 김현애 씨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소형 스피어 무대를 선보인다. 12세 이상 무료 관람.

같은 날 오전 10시 첨단도서관에서는 서지인 강사가 진행하는 인문학 강

의 '동화책 읽어주는 음악회'다. 무료 공연. 문의 061-832-0003.

의재미술관은 오후 3시부터 여성민요그룹 '아리수'의 '해설이 있는 민요콘서트 아리랑특집' 공연이 진행된다. 진



도 아리랑을 비롯해 전국의 아리랑을 엮은 '아리랑 연극', '창부터령', 창작 판소리 '나아쫓미 이야기', 비트박스와 어우러지는 춤향전의 눈대목 '사랑' 등 다양한 장르, 신명나는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2-3040.

광주박물관 '큐레이터의 유물 강의' 담양 대담미술관 '악樂! 악Rock' 남포미술관 '동화책 읽어주는 음악회'

좌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신랑, 내 세계'를 주제로 열린다. 또 수완동 장덕도서관은 갤러리를 밤 9시까지 연장 개방한다. 갤러리에서는 빛고을고등학교 미술동아리의 '그리운 풍경전'을 운영한다. 문의 062-960-8253.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는 오후 7시 야외 공연장에서 가수 정동하와 박세연 명창이 출연하는 '악樂! 악Rock! 소리나게 놀아보자' 공연이 열린다. 약 1시간 동안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 고법을 이수한 박세연 명창과 한국 대표 록음악그룹 부활 출신 정동하의 흥겨운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펼쳐진다. 티켓 사전예매 1만원, 현장구매 1만5000원. 문의 061-381-0082.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은 오전 11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보고 듣는 동화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흥미로운 영상을 배경으로 '모차르트 모음곡', '겨울왕국 OST', '반짝반짝 작은

우재미술관에서는 오후 3시 이명옥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을 초청해 '피카소처럼 생각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이 회장은 창의성이 뛰어난 옛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문의 062-224-6601.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연장운영하며 오후 5~6시 '국보가 출토된 화산 대곡리 유적'을 주제로 큐레이터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은화수 학예실장이 강사로 나서 청동기, 청동기 등 화산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문의 062-570-7000.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은 오후 8시까지 관람시간을 연장한다. 시립미술관 062-613-7100. 민속박물관 062-613-53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특' 26일 '1그램의 용기' 한책 토론회

범 시·도민 독서운동 '광주·전남 특'을 이끌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26일 오후 4시 도서관(별관) 취업강의실에서 한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한비아의 '1그램의 용기'에 대한 독서토론의 장으로, 시·도민 패널리스트가 참여해 끝장 토론을 벌인다.

패널로는 목포 덕인고 학생 클럽 '북어국'의 장호재(10대) 군, 전남대 국악과 학생모임 '책처럼 음악처럼' 대표 이승

은(20대) 씨, 광주 북구 양산동 작은도서관 독서모임 '햇살 가득'의 윤방용(30대) 씨, 주부 모임 '독서백편'의 최영순(40대) 씨, 어린이도서연구회 '동그라미'의 이정호(60대) 씨가 참여한다.

진행자로 나선 이민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용기란 무엇인가'를 토론주제로 정하고, '1그램의 용기'와 동반도서 '공정의 배신'을 함께 읽을 것을 추천했다.

한편, 전남대학교는 시·도민의 투표를 통해 올해 함께 읽을 한책으로 '1그램의 용기'를 선정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공동체 경제와 젠더'...전남여성플라자 여성정책포럼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손문금·사진)는 26일 오후 2시 2층 강의실에서 '공동체경제와 젠더'를 주제로 지역공동체 경제 회복을 위한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경제를 통해 마을을 되살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끌고 있는 사례를 공유해 지역여성들의 공동체 경제로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풀뿌리자치연구소 하승우 박사의 '한국 공동체 경제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농촌



행 사회적경제 현황과 성공요인', '전남 여성소기업과 마을경제'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여성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1-260-7323. /이보람기자 boram@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용기장 정윤석

강진칠량봉황용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용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용기입니다

남도의 유자재 강진에서 용기를 빚는 정윤석씨 정명관(가) 부자

A 2말 40kg 40L, B 1말 20kg 20L, C 1.5말 15kg 15L, D 3말 60kg 60L, E 2말 40kg 40L, F 1말 20kg 20L, G 0.5말 10kg 10L

강진칠량봉황용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용기로179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파충류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